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호 [부록 제24790호] 주제 104 (2015)년 1월 12일 (월요일)

당의 경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경도를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받들자

위대한 백두령장의 전투적호소따라 세대의 진군기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는 지금 백혈불굴의 혁명적신념이 만장약되어있다. 오직 자기 수령, 자기 경도지의 사상과 의도만을 따르고 살아도 죽어도 끝까지 당과 운명을 함께 해 나가려는 열화같은 충정이 우리의 총진군대오에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경도자이시며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백전백승의 상징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명도력, 무한한 정력으로 혁명적 건설의 모든 분야의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가고계신다. 력사적인 신년사를 발표하시어 올해 총진군의 위대한 열매를 펼쳐주시고 정초부터 평양속악원과 애육원을 찾وسی어 원아들을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은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을 안겨주고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주셨다.

우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따라 혁명의 천마리를 걸으며 신심깊이 간직된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당의 사상과 경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목숨바쳐 지켜야 할 혁명의 가장 고상한 품성이다.》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 력사에 관통되어있는 고귀한 정신이다. 혁명의 개척기에 항일혁명투사들이 높이 추켜든 이 기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거머쥔철철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고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마다 온갖 원수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당과 수령을 옹위해준 빛나는 기적이 되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골죽을 먹어도 붉은기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 당과 수령을 받들어 선군혁명전선리를 끝까지 가가려는 결연한 의지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을 헤쳐온 영웅적인민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경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생명처럼 간직된 군대와 인민이 있었기에 우리 혁명이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승승장구할수 있었다.

경도지는 군대와 인민을 믿고 천만군민은 경도자를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우리의 현연일체의 위력은 지난 3년간 피사의 경지에서 힘있게 파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12월의 피눈물의 언덕에서 천만군민을 일으켜세우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결을결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걸출한 경도자이시며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수령의 위업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시고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경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심어준 자양분이었다. 적들의 추구가 도사리고있는 최전연초소도 마다하지 않고 병사들을 찾아가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적 선군장정은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혁명대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 할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억척같이 다져지고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이 꽃피어어지게 되었다.

올해의 진군은 당의 경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념과 의리는 곧 힘이고 존엄이며 승리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혁명신념, 혁명투지, 혁명배양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강성국가건설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전통,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불멸의 위력도,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에서의 눈부신 비약도 천만군민의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불굴의 신념과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고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며 올해의 총진군을 자랑찬 승리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경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원수님과 사상과 뜻,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민모두가 지켜야 할 혁명적신념이다.

혁명적신념은 수령이 경도하는 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드림같은 결심이 결합된 숭고한 사상의식이다. 신념이 투철한 혁명가는 사상과 공명을 모르며 단결을 동료화하거나 주저않는 법이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생년기를 헤쳐오면서 그이의 천체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 비범한 명도예술과 고매한 품도에 끝없이 매혹되었다. 오늘 전체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슬하에서 자라온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일원단심 원수님의 사상과 경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책사의 의지가 굳게 간직되어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천만군민의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되고있으며 온 나라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우리의 혁명적신념은 부사제도 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눈속에 파묻혀있어도 푸름을 변치 않는 소나무처럼, 불에 타도 골을 굽지 않는 참대처럼 티없이 맑고 변함없으며 강의한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혁명적신념으로 하여 우리 당과 혁명대오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조직적전일체, 사상적순결체로 굳건히 다져지게 되는것이다.

지금 미래와 그 추후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 인민의 신념을 허물고 우리 사회주의 정치사상전진, 계급진지에 파멸을 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그 어떤 군사적위협과 경제봉쇄도, 악랄하고 끈질긴 심리타락전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을 절대로 흔들어놓을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사상과 뜻과 정으로 더욱 굳게 묶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천만군민의 혁명적신념은 확고불변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더없는 영광으로, 삶의 전부로 간직하고 온갖 위기를 버쳐 총성으로 보양하자, 이것이 우리 인민모두가 간직하여야 할 혁명적의리이다.

진실한 사랑과 충성은 수평과 전사, 경도자와 인민사이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뜨거운 열과 반열에서 피는것은 혁명전사들의 용감한 도리이고 본분이다.

오늘 우리 조국명우에서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전설같은 화룡들이 끝없이 펼쳐지고있다. 사랑하는 전사들을 찾아 최전방초소들에 서서술을 이어나가고 인민의 품과 마음을 현실로 슬쩍 훑아주시기 위하여 불발불휴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공명을 평범한 로동자가 정들과 어린이들, 전쟁로병들과 혁명유자녀들,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모두를 환용에 안아 열과 정으로 따듯이 보살피주신 대애같은 사랑이며 믿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조국과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들이 영생하는 삶의 절정에 오르고 이 땅에서 사는 누구나 크나큰 행복을 누리게되고있다.

사랑과 믿음에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의리가 없는 인간이며 이보다 더 큰 배은망덕은 없다.

지금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덕의 세계에 끌려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총성다해 높이 모실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마음은 끝없이 진실하고 순결하며 원수님을 받드는 천만군민의 힘과 자세는 더없이 견결하고 강렬하다. 생각을 하나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에 철저히 립각하고 걸음을 걸어도 원수님까지 가리키는 길로 곧바로 걸으며 한가지 일을 하여도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데로 해나가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의지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대개척의 아버지로 모시고있는 우리 조국과 혁명의 앞길은 밝고 창창하다. 천만군민이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경도를 충직하게 받드는것을 고결한 도덕의리로,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 살며 투쟁해나갈 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의 념원은 자랄한 현실로 꽃피고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은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게 하는 마음의 기둥이며 값높고 보람찬 삶을 끝없이 빛내이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우리는 생애가 어떻게 변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고 하여도 변함없이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경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백승의 보검인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근본초석이다. 자기 경도지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정과 의리로 굳게 뭉친 위대한 혼연일체,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승의 원천이 있고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생애에 전당, 전군, 전민이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행군길을 뜻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유훈교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과 투쟁의 좌우명이며 혁명승리의 기치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조국과 민족을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명도업적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경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총공격을 이룩해나갈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과, 발걸음도 같이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보아도 뒤에서 보아도 한 모습으로 사는 일원단심, 순탄한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변함없는 일원단심을 지녀야 한다. 열가지, 백가지를 하고싶고 또 할수 있는도 당에서 한가지를 하라고 하면 오직 그대로 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는 강한 혁명적규율과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누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신념과 의리의 인간, 철혈고도에서도 수령결사옹위의 삶을 빛내어나가는 불굴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뚜렷이 파시되어야 한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은 수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점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관철해내는 사람이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전진배기혁명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는 진로를 밝혀준 전투적기치이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우리의기를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어나가는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만신의 배고동소리로 황금해의 세사를 쫓아내고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한 인민군대 수반부문의 일꾼들과 이로 공들의 영웅적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당정책을 말로만 외우고 즉시 집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상관철과 사업태도에 투쟁의 불을 걸고 그 군원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당이 맡겨준 초소와 일터에서 누가 보인들, 알아주건말건 순결한 랑십과 의리로 당의 위업을 받들어나가야 한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꾼들은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삶의 순간순간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일꾼들은 당의 사상과 의리를 환히 깨닫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당과 국가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오명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전체 일꾼들이 천만군민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고 인민에 대한 열사부무정신을 지닌 참된 총부기 되어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같이 투쟁해나가야 한다.

강한 혁명적신념과 고결한 도덕의리심은 조선의 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을 낳게 한 근본바탕이다. 우리의 선군혁명대오에는 언제나 백두정령에서 창조된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차넘쳐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체친 항일의 념원과 애야 한다. 누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신념과 의리의 인간, 철혈고도에서도 수령결사옹위의 삶을 빛내어나가는 불굴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뚜렷이 파시되어야 한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은 수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점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관철해내는 사람이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전진배기혁명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는 진로를 밝혀준 전투적기치이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우리의기를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어나가는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만신의 배고동소리로 황금해의 세사를 쫓아내고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한 인민군대 수반부문의 일꾼들과 이로 공들의 영웅적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당정책을 말로만 외우고 즉시 집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상관철과 사업태도에 투쟁의 불을 걸고 그 군원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당이 맡겨준 초소와 일터에서 누가 보인들, 알아주건말건 순결한 랑십과 의리로 당의 위업을 받들어나가야 한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꾼들은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삶의 순간순간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일꾼들은 당의 사상과 의리를 환히 깨닫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당과 국가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오명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전체 일꾼들이 천만군민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고 인민에 대한 열사부무정신을 지닌 참된 총부기 되어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은을 내는 특산식료품 가공기지들

생산정신화의 불꽃이 울려간다

각 도종합식료품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받들고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경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도마다 꾸린 종합식료품장은 특산식료품가공기지로서 특산기민품 자기 도의 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일포 특산물공장을 찾으셨던 잊지 못할 여섯해전 그날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하고있다. 원로투입으로부터 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이 흡집을없이 완비된 작업현장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각도마다 이런 특산물가공기지를 꾸려놓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이바지하도록 할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한해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전국의 모든 도에는 삼일포특산물공장 같은 종합식료품공장이 자기 도의 특성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러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명도로 그처럼 바쁘신속에서도 정방산종합식료품장과 밀고 협한 자강도와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장자산종합식료품장, 수성전종합식료품장, 백운산종합식료품장을 찾기도 하셨으니 삼일포

의 불씨가 거센 불길로 타버린지도록 길은길은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총속에 태어난 각 도종합식료품공장은 조엄한 때로부터 불과 몇해사이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없어서는 안될 식료품가공기지로 훌륭히 전변되었다.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를 드린 수성전종합식료품장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오늘도 영광의 그날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이 공장장의 기업관리와 경영활동에서 특징적인것은 자기 지방에서 나오는 원료에 의거한 생산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고 생산과 과학기술의 일체화가 실현되어 어느때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것이다.

공장에서는 이미 효모에 의한 물엿생산공정을 확립하여 갖가지 식료가공품생산에서 원단위소비기준을 훨씬 낮춘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였다. 가공식료품의 질문제에서도 젓산균분배양체계를 확립하여 풍산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고 미생물에 의한 색소배양공정을 실정에 맞게 훌륭히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강병이를 주원료로 하는 갖가지 파자를 생산하고있으며 알사탕, 콩사탕, 에스키모생선이런 식료를 적극 리용하고있다. 이렇게 과학기술발전이 큰 힘을 넣어 생산한가를 극력 낮춤으로써 적은 원료, 저체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서 다른 단량면과 과일맛을 가진 당당히 알자리에 설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자라나게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는 정방산종합식료품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을 위한 헌신적부무정신을 안고 자기 지방의 특색있는 식료가공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여가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현장에 알은 충실현에 의한 평안방화물 생산현장은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고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한 커다란 성과였다. 인민의 생활을 위한 식료품공장을 보다 현대화함으로써 도내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지 덕을 보게 하고있다.

최근 송도원종합식료품공장에서 생산하는 파자, 사탕을 비롯하여 당과류들은 물론 빵류, 국수류에 대한 호형이 대단히 높아져 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 공장 일꾼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을 세우고 생산과 과학기술의 일체화를 실현하여 실리있게 기업관리를 해나가고있다. 공장의 기업관리에 해결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가 제품의 질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계량측수단들과 실험분석설비를 현대화한것이다. 또한 실력있는 기술자들로 기술력향을 꾸리고 그들의 권중

과 함께 책임성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였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평파자, 어린이파자, 튀기파자, 과일향사탕, 알사탕은 자기 단위를 상징하는 지표도 단연인민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호형이 대단하다.

장자산종합식료품장, 백운산종합식료품장을 비롯한 각 도종합식료품공장에서조차 지방의 원료원천을 최대한 동원하고 설비의 현대화를 우리 식,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해나감으로써 단연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인민의 사랑받는 공장으로 날로 전변되어가고있다.

열매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나라 식료품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에 접한 각 도종합식료품공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현대화의 기풍을 옮겨 붙이고 기술개선을 이 공장에서처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실현할 목표에 신념이 넘쳐 일떠섰다.

지금 이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한 헌신의 강행군으로 뿌려주신 행복의 씨앗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경도따라 반복의 열매로 더욱 숭고하게 무르익혀 뜻있는 올해를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어갈 불타는 열의에 충진되어있다.

본사기자 명홍숙

리영호, 김순희동무들은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 식의 집집순떡이첨가제를 연구완성하고 그 효과성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자강도당위원회 지도부에 도목장관리국 일꾼들은 현대적인 축산기자들이 들어앉은 홍주지구에 공장건설부지를 정하고 시, 군단공로로동자들로 돌격대를 꾸렸다.

공장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많은 일을 해체했다.

대장 김광주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경쟁의 투쟁기풍으로 수천㎡의 수평면의 감탕을 퍼내고 3천㎡의 막들을 채워넣어 1만 수천㎡의 공장건설부지를 닦아

놓았다. 편이 이들은 수백㎡나 되는 4개의 기본생산토끼우여러개의 보조건설을 일떠세우고 울타리공사와 구내포장, 도로포장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의 책임일꾼들이 건설에 자주 나와 공장건설현장을 돌아보고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고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그리고 도의 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에서 설비제작을 공장체에 보내주도록 하였다.

주체 102(2013)년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에 따라 일떠서는 첨가제공장건설정형은 구체적인 로해하고 공장건설을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먹이첨가제공장의 생산공정에 필요한 수직층에 110여명에 달하는 설비들을 훌륭히 제작하여 보내주었다.

회천공업대학 교원들과 돌격대원들은 창조적시도를 합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설비조립공사를 끝내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자강첨가제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조국해방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둘이 되는 뜻깊은 올해 여러가지 효과성이 높은 집집순떡이첨가제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어 도의 축산물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절세의 위인들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새해 진군길에 울려 퍼지는 위력한 사상공세의 포성

사상의 무기를 메고 전투장으로, 대중속으로!

평안남도안의 대고조전투장들이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있다.

도당위원회는 대중의 양양된 기세에 맞게 사상공세작전을 더욱 짜고들어 그들의 정신력이 새해의 첫 진군길에서부터 최대로 발휘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기를 철물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주체의 사상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대중의 정신력이 총폭발되게 하자!

도당위원회 일군들부터 사상의 무기를 메고 대중속으로 들어가자!

이것이 도당위원회가 내세운 올해 정치사업방향이다.

신년사과업관철에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벌려나가는 데서 도당위원회는 일군들의 기술적인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었다.

대중의 정신력을 발달하기 위한 사업에 도당위원회의 모든 부서의 일군들이 다 참가하게 하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도당위원회의 작전에 따라 새해 첫날 도당책임비서 박태성 동무를 비롯한 100여명의 일군들이 도안의 화력발전소와 위력한 북상화력발전연합기업소,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중점대상들에 달려나갔다.

새해 첫 전투진지를 사무실이 아니라 들끓는 전투장현판가 장이 어려운 곳에 정하고 총공격적인 포성을 드세게 울리는 도당일군들의 화신정기사업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북상화력발전연합기업소 운전장소에 나간 도당위원회 책임 일군은 로동자들에게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새겨주면서 북상에서 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야 선행부문과 중요공급부문을 추켜세울 수 있다는 자각을 안고 전력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호소하였다. 다음날에는 생산조건이 가장 불리한 덕천탄광 남쪽에 당장전대 막장에 들었다. 탄부들에게 성의껏 준비해가지고 온 지원물자도 안겨주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벽에 새기고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조국방방 일흔들과 당장전대 일흔들이 되는 올해를 혁명적대승으로 빛내이고 호소하는 그의 화신정기

사업에 고무된 탄부들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하루평균 20여톤의 석탄을 더 생산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조직부 부부장이상 일군들과 함께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청천강화력발전소에 나간 도당위원회 비서 안금철동무는 열성산직장의 로동자들에게 들어가 걸린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풀자면 어디에 힘을 넣어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위사업을 함께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참신하게 벌려나가는 그의 화신정기사업에 고무된 로동자들은 생산을 늘일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내놓으며 기세를 올렸다.

2.8직동청년관람 5명 체관 5중대 막장에 들어간 도당위원회 파장 강릉남동무들 비롯한 일군들은 탄부들과 함께 신일이 낫도록 막장길을 오가며 탄차도 밀고 화신정기사업을 기동적으로 벌려 탄부들의 가슴을 달구어주었다.

도당위원회 일군들만이 아니라 시, 군당위원회, 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도 대고조전투장의 한복판에 전투진지를 정하고 인민군대정치일군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

을 치면서 정치사업을 화신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대중의 정신력이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총폭발되게 하였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모든 전투장들이 대고조전투장으로 새차게 옮겨 가기 위한 선동공세를 박력있게 벌려나갔다.

새해에 들어와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벌려나가고있는 경제선동의 특징은 한마디로 모든 선전선동현황이 대고조전투장에 전개되고있다는데 있다.

도와 시, 군, 연합기업소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곳곳에 신년사과업관철에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1만 2000여명의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별히 눈길을 끄는것은 도당위원회 일군들과 중점대상의 일군들이 직접 방승마이크를 잡고 현장에서 벌려나가고있는 방송선동이다.

남흥청년화력연합기업소 가스발생로직장에 나간 도당위원회 비서 장성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로동자들에게 들어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올해 우리 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모두가 신년사에서 밝혀준대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일하여야 한다는것을 원리적으로 해설해주어 대중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500여의 도시거름을 싣고 평원군 원화협동농장과 안주시 송학협동농장에 나간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포전에서 농업근로자들과 밀도 함께 하고 방승마이크를 잡고 거름생산현투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도당위원회의 작전에 따라 순천지구청년관람연합기업소인인관람들과 남흥청년화력연합기업소, 청천강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도안의 대고조전투장들에 나간 도에출단, 도에출선전대배우들도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집결적인 경제선동을 박력있게 벌렸다.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사상의 무기를 메고 대중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애국충정의 불길을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드세게 벌려나가고있는 도당위원회 일군들의 화신정기사업의 위력은 그대로 도안의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고 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피를 끓게 하는 직관선동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구내에는 붉은기와 속도판들, 전투적구호들이 전개되어 새해 첫 진군길에서부터 전투분위기를 한껏 돋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올해의 투쟁구호를 70여개의 단위들에 90여점이나 게시한 당위원회 일군들은 직관선동과 지혜를 합쳐 항일유격대의 나팔

수를 향상한 그림과 함께 비료생산투쟁으로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글발들을 대형 속도판과 이동속도판들에 게시하여 비료생산자들의 심장을 떨릴 끓게 하고있다. 또한 구내의 곳곳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내용을 반영한 표어들을 수십점이나 전개하도록 하고 원료직장, 가스발생로직장 등 중요생산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의 건설자들은 자기단위의 일군들을 불씨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있다.

기업소의 일군들은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화신정기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간석지건설장에 애국충정의 불길이 기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흥남도간석지건설장으로

불씨를 안은 사람들

달려나간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들과 굴진공들께 안겨주고 그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정치사업을 정황에 맞게 진행하여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켰다. 굴진공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굴진전투를 벌려 10만산대발파를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진행함으로써 간석지건설을 다그칠수 있는 돌파구를 열리게 하였다.

장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와 다사, 청강기계화사업소의 일군들도 건설공들과의 사업을 마음파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모든 전투장들에 창조적 불길,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대중의 제 1인수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동속에 받아안은 신년선동현황을 보고있는 것은 대중의 앞장에서 화신정기사업의 위력을 한껏 돋구어 준다는데 있다.

음향총독이개공을 그르히 갖춘 온천, 발전협동농장의 선동현황을 비롯한 군안의 농촌선동현황은 그것을 리용하여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과 신년사의 내용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선동사업을 화신적으로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선동현황에 들어가 그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제 1인수가 되어 항일유격대의 나팔수처럼 총공격적인 진군나팔소리를 높이 울려가도록 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선동대화동을 강화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투장들이 언제나 혁명적분위기로 부글부글 끓을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전투적기조를 가지고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습니다.》

얼마전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올해의 첫 금요로동이 진행된 날에 받았던 인상은 나의 머릿속에서 떠날줄 모른다.

많은 영농물자와 질 좋은 거름을 마련해가지고 농장벌에 달려나와 농장원들과 함께 땅을 흘리며 거름을 나르던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의 모습도 인상깊었지만 그날 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킨 예술선동의 위력한 포성은 지금도 나의 가슴에 메아리되어 끝없이 울리고있다.

농장벌을 들었다놓는 예술선동의 포성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진군길에 나선 농장원들과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그때 문화성 당위원회의 한 일군이 나에게 한 말은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피마디가극단, 국립연극단을 비롯한 중앙예술단의 배우들도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농장벌에 달려나와 예술선동의 화폭화를 들이대고있다고 하

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새해 첫 전투의 무대를 극장이 아니라 들끓는 전투장의 한복판에 정하고 화신정기사업의 동화음을 힘있게 벌려 우리 예술인들이 오늘날 이 장천벌에 무대를 펼쳤습니다. 비록 관람석은 없지만 이 무대야말로 대중의 심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울려주는 예술의 위력한 활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관람석이 없는 무대! 음미해볼수록 생각이 깊어진다.

장에서 대중을 당직관철에로 불러일으키고있는 진군의 예술단들과 예술선동대, 기동예술선동대들이 펼쳐지고있는 화신정기사업의 동화음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출연하는 장소들은 비록 그 어떤 조명장치나 관람석이 없다. 하지만 들끓는 전투장 한복판에 무대로 삼고 항일유격대식, 화신정기사업으로 벌리고있는 예술선동의 필요는 참으로 대단하다.

노래소리 높은 곳에 승리가 있다는것은 모진 총파를 뚫고 헤쳐나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우리 혁명의 진리이다.

바로 그 진리의 힘이 오늘의 진군길에서도 그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확충해주고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전투장들에 펼쳐지는 예술선동의 무대와 더불어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것이다.

결국 온 나라 대고조전투장들은 그대로 천만의 심장을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신무대로 된셈이었다.

그렇다.

관람석이 없는 화신무대! 바로 온 나라의 격진장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새차게 옮겨 하며 끝없이 펼쳐지는 화신무대들을 다 합쳐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10월의 대축전장의 경축무대가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채인철

관람석이 없는 무대

관람석이 없는 무대! 음미해볼수록 생각이 깊어진다.

장에서 대중을 당직관철에로 불러일으키고있는 진군의 예술단들과 예술선동대, 기동예술선동대들이 펼쳐지고있는 화신정기사업의 동화음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출연하는 장소들은 비록 그 어떤 조명장치나 관람석이 없다. 하지만 들끓는 전투장 한복판에 무대로 삼고 항일유격대식, 화신정기사업으로 벌리고있는 예술선동의 필요는 참으로 대단하다.

노래소리 높은 곳에 승리가 있다는것은 모진 총파를 뚫고 헤쳐나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우리 혁명의 진리이다.

바로 그 진리의 힘이 오늘의 진군길에서도 그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확충해주고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전투장들에 펼쳐지는 예술선동의 무대와 더불어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것이다.

결국 온 나라 대고조전투장들은 그대로 천만의 심장을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신무대로 된셈이었다.

그렇다.

관람석이 없는 화신무대! 바로 온 나라의 격진장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새차게 옮겨 하며 끝없이 펼쳐지는 화신무대들을 다 합쳐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10월의 대축전장의 경축무대가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채인철

일제히 포문을 연 방사포들

력포구역안의 농촌선동원들

새해 첫날에만도 수천의 자금비료를 생산하였으며 많은 량의 거름을 운반하는 전례없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평도협동농장 농장들의 선동원들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기세를 울리며 화신선전, 화신선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류현남새전문협동농장 선동원들은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오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업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실정에 맞게 잘해나갔다. 며칠전에는

성, 중앙기관에서 힘있는 지원사업이 진행되것과 관련하여 당에서 농업선전을 얼마나 중시하고 농촌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얼마나 높고있고있는가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겨주면서 농업선전을 지켜주인의 본분을 다해나감에 대한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여 이날 하루에만도 농장적으로 수많은 거름을 포전에 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소신남새전문협동농장 알곡작업단 선동원 백봉춘동무는 신년사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걸그림을 만들어가지고

해설사업을 참신하게 벌렸다. 이것이 일반화되어 다음날부터는 농장안의 선동원들 모두가 자체의 실정에 맞게 신년사의 정신으로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켰다.

세우물남새전문협동농장 알곡작업단 선동원 정순동동무는 가정에서 마련한 10개의 붉은 거름을 전투장에 세워놓고 신년사에 대한 목표와 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날 농장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세가 그대로 맥박치는 붉은기아에서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다세대 포비서 모임이 있는 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우시장공장 조급당위원회 일군들은 당세포비서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과 그를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세포비서들이 앞장설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모임이 끝난 즉시 당세포비서들은 들끓는 전투장으로 달려나갔다. 최영옥동무를 비롯한 당세포비서들은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당원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렸다. 전투원들 모두가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그 앞에서는 당세포비서들이 서있었다. 결국 이날전투에서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본사기자 장철범

서리꽃의 마시경스키장

만산에 붉은 단풍이 타듯 흰눈덮인 마시경에 서리꽃이 만발했다. 천연산악지대에 희한하게 일떠선 세계 일류급의 스키장을 단장하려는가 산발마다 호합지게 피어낸 서리꽃이여! 그날도 서리꽃이 활짝 핀 날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개장을 앞둔 마시경스키장을 찾으신 두레전 12월의 그날은!

온 나라 인민이 신문과 텔레비전 화면을 통하여 몸소 속도물 타시고 정경까지 오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어로는 영상을 우리렸다.

그이께서 속도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설치되었고 주로들의 상태도 너무 달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천만인민은 눈물을 쏟았다.

그날의 뜨거운 눈물이 올해 또다시 본사의 문을 활짝 연 마시경스키장의 곳곳마다 눈부신 서리꽃마다를 펼친것은 아닌지.

대화봉정점에서 활활 날아내리는 《스키선수》들과 우리 원수님께서 몸소 타시었던 속도물 타고 한겨울의 신년선녀가 흰옷 기쁨의 미소를 짓는 겨울철운동에로가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지구상에 이롭나 겨울철체육기자들이 많다 하라.

하나 우리의 마시경스키장처럼 한 나라의 령도자가 개장을 앞두고 제일 먼저 찾아 시설들과 건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속도물까지 올라 인민을 위한 시운전을 몸소 진행한 감동깊은 시연을 간직한 체육기지가 있는가.

인민을 위해 바치신 우리 원수님의 무한한 헌신의 빛깔인듯 마시경에 서리꽃이 눈부시게 빛나고 그야말로 인민의 기쁨이, 행복이 울려퍼진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모두 다 선군시대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당의 혁명전사, 농촌기계화초병으로 마흔두해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증산군 풍정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반장 김태성동무

농장포전을 기름지게 가꾸어 많은 알곡을 생산한 실농군을 애국농민이라고 부른다. 하다면 그들의 어렵고 힘든 농사일의 부담을 덜어주는 농촌기계화초병들의 위훈을 그 어떤 호칭에 다 담을수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프락토르운전수들은 밭별을 위하여 일하는 54일군이 아니라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전사들입니다.»

높은 알곡생산과로 부강조국건설에 보탬을 주고 당에 기쁘신 농장들에는 틀림없이 참된 실농군, 애국농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진실하고 훌륭한 기계화초병들이 있다. 봄이면 드넓은 협동농장을 힘차게 갈아엎고 가을이면 푸르디은 곡식단을 집매같이 실어나르며 기계화초병들이 사시정월 펼쳐가는

위훈은 돌격명령을 받은 부대의 진군로를 질풍같이 열어가는 군위명령들의 위훈에 비길만큼 미덥고 장하다. 우리 나라 농촌진지장화의 핵심으로, 사회주의농촌경제발전의 기수가 되어 역세게 나아가는 혁명의 제1세대, 제1선참호-농업전선의 《군위명령》에 오직 우리의 주인공도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 길에 열매, 스무해에도 아닌 장장 마흔두해동안 순결하고 진한 피땀을 아낌없이 뿜어온 김태성동무, 지난 10여년간 기계화작업반 반장으로서 작업반원들을 참되게 이끌어 농장생산작업의 기계화비율을 85%로 높였으며 농촌의 쌀독을 채우는데 적극 기여한 그를 우리는 또 한명의 참된 애국농민, 사회주의협동농장의 자랑스러운 《군위명령》이라고 부르고싶다.

단원사의 아들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한대의 빠스카수도교의길을 달리고있었다. 이어 대동군지정을 넘고 증산군 읍지구를 지나 계속 달려나리니 차창으로 구슬한 남안애와 함께 비탄한 해풍이 날아들었다. 《풍정명이다.》

웁군 목소리라 빠스카안에 울리자 일행의 눈길은 창밖으로 쏠렸다. 그들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농촌으로 단원해가는 수도의 한 벽돌공장 로동자의 가족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살게 되나요? 가족의 한 성인원 15살가방 되는 소년이 물었다. «그럼.》 소년의 아버지가 머리를 끄덕였다.

소년은 좀 뿌루룩한 기색이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학교 음악소조원이었던 그는 트럼페트를 잘 부는 재간동이었던것이다. 생각에 잠겨 트럼페트가 든 함을 쏘아만지는 그의 작은 어깨를 아버지가 꼭 잡아주었다. «걱정말아라. 우리가 가는 풍정리는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이란다. 트럼페트도 얼마든지 더 배울수 있지.» 아버지의 말에 소년의 얼굴은 밝아졌다.

«아버지는 로동계급으로서 농민들을 돕고 싶어 이곳에 왔다. 내가 프락토르운전수가 되면 농민들을 더 잘 도울수 있으니 참 좋구나.» 양상소를 졸업하고 프락토르운전수가 된지 얼마 안되어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또다시 농장에 보내주신 새 프락토르를 맡게 되었다.

농장이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던 그날 저녁 김태성동무는 노을빛으로 더욱 빨갰게 타는 새 프락토르를 오래도록 쏘아만졌다. 아버지이수형님께서 보내주신 새 프락토르에 아버지는 저녁노을빛, 그것은 황혼의 석양이 아니라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한 새날의 아침해돋이와 같았다.

«프락토르야, 난 너를 떠나 못할것 같구나.» 못 잊고 그 저녁의 정경은 고백은 한해, 두해 세월을 넘어 마흔두해로 이어졌다. 그 오랜 세월 김태성동무는 프락토르를 살점처럼 아끼고 전우처럼 위하였다. 프락토르는 그 자신이었고 프락토르발동소리는 그의 뜨거운 심장의 박동이었다.

어느해 가을날 점심이 지날무렵 작업반에 나와 일하는 프락토르운전수가 아직 식사전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나왔던 한 작업반장은 눈만 한가운데 빠진 프락토르와 함께 온몸이 흥망번번이 된 김태성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피곤이 잔뜩 몰린 그의 얼굴을 살펴본 작업반장은 «열어진김에 쉬어간다는 말도 있지 않소. 그러다간 운전수동무마저 쓰러지겠구나.»라고 하며 일이 이렇게 된바에는 들어가 식사하고 좀 쉬라고, 그러는 사이에 자기가 농장원들을 동원하여 프락토르를 끌어내겠다고 권했다.

하지만 김태성동무는 논관에 빠진 프락토르를 두고 마음편히 자리를 틀수 없었다. «프락토르바퀴에 밀들들을 고이는 소음이 인차 끌어낼수 있습니다.» 프락토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운전수가 있어야 하고 비록 운전수의 육체는 부사될지언정 프락토르는 성해야 한다는것이 그의 립장이었다.

프락토르를 극진히 사랑한 그는 소의 눈빛과 숲소리, 새길질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건강상태를 알아맞히는 유능한 소관리공마냥 둔중한 동무 하나, 운전장지들의 미세한 작용감각을 높고서도 프락토르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였다. 프락토르박에 모르고 늘 포전에 나가사는 그에게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지 않니? 내가 만나질쯤 한다고 해서 속속 자라던 목식이 안자라겠느냐?»라고 하였을 때 김태성동무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였다. «어머이수형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농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기계로 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프락토르운전수인 내가 쉬면 그만둘 농민들의 집이 무거워져요.»

29살에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김태성동무는 자기가 항상 농장의 핵심이라는 자각을 안고있었다. 농촌기계화초병들은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전사들이라고 하신 아버지이수형님의 고귀한 가르치심은 그의 일에 더욱 알심이 박히게 하였으며 심장속에 타타지는 정열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였다. 그는 한때기 밭을 갈아도 아슬아슬 정성을 다하여 농장원들이 다시 손길을 하지 않게 하였으며 논밭에 씨를 뿌려 그 겨울같이 반듯하게 고루어 누구나 아야-하 고 감탄하게 만들었다.

프락토르운전수로 일해온 기간 모르고 한뿐이라도 운전은 잘못하여 고장의 흠을 짓물게거나 논두렁을 허문적이지는 그를 농장원들은 참사람이라고 불렀다. «이 땅을 너희들에게 맡기고 간다.»

열, 맥, 천, 만을 움직이는 하나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의 시기 누구보다 피눈물을 많이 쏟은 사람들은 아마도 농민들이었다. 모근것이 부족하였지만 중요하게는 식량난으로 하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서나 보았던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나라의 싹들을 책임진 주인공로서 어찌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으랴.

이삭을 가꾸어 알알이 푸르디키는 농민들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름아닌 농촌기계화초병들이다. 난밭같이겉이면 어서 찾아왔어야하는듯 더운 길에 물러올려는 유능자들은 똑똑이 전 프락토르의 차를 운전시키며 그리 안다못해 돌덩이같은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탕탕 치며 피눈물을 쏟았다. 지난 시기 나라에서 애 농장들마다 정보수까지 따져지며 차근차근 즐기게 갖추어온 프락토르들과 연결기계들을 두는 편히 프고 보면서 연유가 모자라고 부족함이 될 한해 농사차도 바느질도 여인 소들에게 내밀거야 했으니 억대같은 사나이들이라고 해도 억장이 무너지내지 않을수 있었다. 지난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은덕으로 나라적으로도 기계화비율이 높은 축에 속하였던 증산군 풍정협동농장의 실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 엄혹한 때에 김태성동무는 종래의 운수작업반까지 통합한 기계화작업반 반장으로 임명받았다. 막중한 믿음을 받아안고 무거운 걸음으로 기계화작업반의 실태를 구주적으로 알아본 그의 마음은 천근단근으로 내리누르는듯 싶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당시 작업반에서 제일 난감한것은 프락토르들의 중부수, 대부수를 농장에서 수신키나 떨어진 곳에까지 가서 하는 문제였다. 수신키가 넘는 프락토르들이 왕복 100리에 달하는 길을 한번씩 다녀오고나면 연유사정이 더욱 긴박해지곤 하였다. 프락토르수리를 작업반에서 자체로 하면 연유도 그대 노력문제도 그대 많은것이 풀려나갈것이었으나 그것은 당시 작업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높고볼때 엄두도 많수 없는 일이었다.

어찌면 좋단 말인가.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모대기술에 낫과 밤을 보내던 어느날이었다. 농장의 한 일꾼이 그를 찾아왔다. 기계화

어든살이 년도록 남매작업반 분조장사업을 하며 포전을 떠나지 않은 아버지가 립종의 시기에 낡은 이 땅을 김태성동무는 한생도록 가슴에 새기었다. 태를 묻은 고향도 아닌 곳을 자식들에게 맡기고 간다는 한 탄원자의 절절한 당부, 바로 그속에서 우리는 당과 수령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 방방곡곡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앞을 다투어 달려간 유명무명의 탄원자들이 자기 후대들에게 넘겨준 참다운 애국의 바를을 본다.

공화국의 60여년 역사에 자라난 수많은 탄원자들의 후손들이 혈육도 친척도 없는 외딴 고장에서 탐험하여 일하는것은 단지 자식으로서 부모들의 뒤를 이어야 하기때문만이 아니라 당과 조국의 부름앞에 후더운 심장과 한생을 통째로 내낸 혁명의 전세대대의 고결한 넋을 새 세대로서 못가지고 지키고 빛내여갈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인것이다.

김태성동무의 마흔두해도 바로 그렇게 흘렸다. 소년시절에 그토록 사랑하던 맑고 아름다운 트럼페트의 울림대신 오늘 그의 심장속에는 당의 뜻을 받들어 가나간 40여년간 울려온 농촌기계화의 고귀한 동음이 깊이 자리잡았다.

그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울림으로 새겨진 프락토르발동소리, 그 정깊은 울림은 당의 혁명전사, 농촌기계화초병으로 키워 주고 내세워준 위대한 어머니당을 우러러 그가 한생을 다해 삼가 엮어드리는 가장 맑은 충정의 선율, 가장 송고한 애국의 교향곡이 아니겠는가.

작업반을 추켜세울 방도를 찾아보았는가

하는 일군에게 김태성동무는 프락토르수리를 자체로 하면 좋겠는다고 사실상태에서 도저히 불가능한것 같다고 사신키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일군은 «자세수리기지를 꾸러야 한다는거구나.»라고 하더니 방도가 나왔으면 협동농장의 땅크방법에 돌진해야지 왜 그러고 있는가 하고는 하였다.

«지급형원이 어디...» 말을 맺지 못하는 그에게 일군은 말하였다. «며칠전 동무가 늙이 쓴 연결기계에서 주먹으로 눈물을 닦고서 그대 기계화초병반에 주인이 생겼구나 하고 기뻐했잖소. 그런데 오늘 보니 아직 진짜주인이 못된가? 한순간의 격정이지 늘은 애국이 아니지 않소.»

생각해보오, 우리 나라에서 프락토르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때에도 중소수기구밖에 만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기상천외한 소리로인하고 한사람들도 있었소. 하지만 우리 로동계급은 끝끝내 첫 《천리마》프락토르를 기어이 만들어내고 계속하여 《풍년호》, 《진달》프락토르들까지 만들어내었소. 천리마시대 로동계급이 못한다면 사고 했다면 할수 있었겠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갈것은 오직 하나, 천리마시대 로동계급처럼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는 길이지요. 일군의 이야기는 김태성동무의 심장을 팡팡 울렸다.

수리기지를 꾸러지고나 기계보다, 자체보다 더 필요한것은 기능이 높은 수리공이었다. 그는 작업반에서 제일 눈높이가 있고 탐구심이 많은 프락토르운전수 리광찬동무를 군공기계작업소에 보내어 기술을 배워오도록 하였다. 단 수리공보다 프락토르운전수가 더 좋다고 쓰야해하는 리광찬동무에게 김태성동무는 말했다.

«가서 배워오. 앞으로 기술높은 동무를 따라다니며 절을 하게 될거요.» 그는 이렇게 리광찬, 윤창환, 권영수동무를 비롯한 여러 작업반원들을 프락토르와 연결기계수리에 능한 전문기술자들로 키웠다. 김태성동무가 그들에게 매일같이 읽어준것은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무엇이나 우리 자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높은 창조주의식이였다. 그와 작업반의 수리공들은 지혜와 열정을 합쳐 풀진기계에서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연로뽀시한대를 성과적으로 만들었고 이어 축침제성기며 연마기, 유압프레스까지 립이여 만들어놓았다.

풍정리의 협동농에 프락토르의 동음이 다시 우렁차게 울렸고 연결기계들도 가동을 시작하였다.

이 사실을 두고 농장원들 누구나 기쁨을 금치 못하였을 때 김태성동무는 앞으로는 모래는 기계방 논두렁짓는기계, 김베는기계... 하여튼 뭐나 다 만들려고 한다고 씩씩하게 대답하였다.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풍정리는 모내기철이면 수천명의 지원자들로 부글부글 끓어 번졌다. 풍정리의 모내기가 끝나자 전국의 모내기가 끝난다고 할 정도로 드넓은 협동농장이여 어떤 농장원들은 그것을 모내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김태성동무는 기계화초병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피로움과 나라에 부담을 끼치는 피스러움으로 속을 태웠다. 그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0여차례, 어머니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농장을 찾아 오시여 풍정협동농장이 종합적기계화의 앞장에 서라고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시던 잊을수 없는 날들이 삼삼하였고 대원수님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농기들이 어떻게 해서 만가동들을 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깊어졌다.

몇해전부터 농장에서는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율을 85%이상 높여 농장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있으며 농사들 자체의 힘으로 고쳤고있다. 세것처럼 변격격리는 80여대의 프락토르들과 다종다양한 연결기계들이 풍정리의 드넓은 협동농을 뒤덮고 가지가지의 농산작업을 할때면 하나의 기계화부대나 출동한 전장인양 정제함을 굴할수 있다.

풍포성은 비록 울리지 않았오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 몇몇때 판이 난지 오렸고 손등이든 손바닥에는 퍼포퍼 몇이 들었다. «만장동무, 이제 그만 민들을 하게 해야 한다고 또 만드는것이 어떻습니까?»

한 수리공이 말라든 입술을 감싸며 이렇게 말하였다.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러라 하는 생각에 측근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김태성동무는 좀 쉬자고 하면서 난로불가로 모두를 불렀다.

«동무들은 알고있소?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경리부문 일꾼들앞에서 우리 농장자랑을 하신 일을 말요.»

나이 초롱초롱하여 모여든 작업반원들에게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0여년전 어느 여름날 농촌경리부문 일꾼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 참석하신 아버지이수형님께서는 일꾼들앞에서 농사를 잘 짓는 문제를 놓고 연설을 하시었다. 다음해 영농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문제를 김태성동무가 잘 표현하여 한다고 강조하시며 기쁨부터도 인연한행전선의 영향을 막아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문제들과 자신에게 여러 유럽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그 나라에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우리 나라와 대비적으로 볼 때 착할이 어떤지 알아본 선례 대해서도 교시하시었다.

아버지이수형님께서 모내기의 기계화를 완성하여 일정한 로력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월안남도 증산군 풍정협동농장에서 지난날에는 모내기를 6월말까지 하였지만 올해에는 모내기를 100% 기계로 하여 5월 30일까지 다 끝냈다고 합니다. 모내기를 이렇게 빨리 끝내야 보기는 풍정리가 생긴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이수형님의 안광에는 환한 미소가 빛났다. «모내기를 기계화하여 농사일을 흥겹고 빠르게 진행할것이 얼마나 기쁘시었으면 한 농장의 소박한 성과를 전국의 농사일을 토의하는 자리에서까지 터놓으셨겠소. 동무들, 난 막 조바심이나오, 우리 기계화초병들이 제구실을 하여 농장이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짓게 된다면 우리 장군님께서 그날의 수령님처럼 무척 기뻐하시겠는데 우리 잘못으로 얼마나 드릴수 있는 기쁨도 못 드린것 같아서 말요.»

진장을 토로하는 작업반장의 이야기를 듣고난 수리공들은 다시 일손을 잡았다. 위대한 천리마시대의 하나가 열을, 열이 백을, 백이 천을, 천이 만을 움직이게 한다는



김태성동무 (왼쪽에서 두번째)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인 리인모동지의 부인 고 김순임동지의 장의식 진행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인 리인모동지의 부인 김순임동지의 장의식이 진행되었다. 김순임동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리인모동지를 전선으로 떠나보낸 후 40여년동안 생사를 알지않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의 아내로써 맡은 직책에서 성실하게 일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리인모동지와 함께 김순임동지를 만나주시고 남편도 영웅이시지만 수십년세월 주인을 기다려 녀성의 지조를 지켜낸 동무도 영웅이라는 가장 값있는 영광을 안겨주시었으며 온 가족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크나큰 믿음과 보살핌속에 김순임동

은 온 나라가 따라배우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의 아내로써 참된 삶을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순임동성이 서거하였다는 보고를 받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화환을 보내주시었으며 장의를 잘해주시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10일 최태동지, 김기남동지, 김양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일꾼들, 비전향장기수들이 고 김순임동지의 영전에 조의를 표시하였다. 11일 애국렬사릉에서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 반일애국렬사 리인모동지의 부인 김순임동지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꾼

단천시 장내협동농장 농산제1작업반 반장 김진명동무는 제대군인 농촌조공급군이다. 지역을 높여주면 뛰어나게도 집총은 자비를 많이 내야 한다면서 그는 거름생산선투로로 작업반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새해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뜻깊은 새해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성, 중앙기관 일꾼들의 집단달리기 11일이 진행되었다. 모임장소인 김일성광장은 배두의 혁명전선과 기상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갈 신심과 열정으로 충만된 정무원들로

홍성이고있었다.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참가자들은 두개 조로 나누어 민주대거리와 평양대극장방향으로 발걸음을 맞추어 달리기 시작하였다. 농업성, 수산성, 전력공업성, 인민봉사총국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일꾼들은 배두의 혁명전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추전정에 멧뭇이 들어설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힘차게 달렸다. 전체 참가자들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며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 기수, 전위투사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갈 의지를 안고 발구름 소리를 더 높이 울려나갔다.

집단달리기에 이어 진행된 대중물동체조와 건강체조도모범 출연은 체육열기로 달아오른 수도의 분위기를 한층 더 돋구어 주었다.

한편 이날 새해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개신문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집단달리기와 건강체조도, 대중물동체조 등이 진행되었으며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화학발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평양시내 공장, 기업소들과 단위들에서도 다채로운 체육경기가 벌어졌다. 각 도, 시, 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집단달리기와 다양한 대중체육활동을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광장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리중성 찍음

